



제4회 한옥마을 전국트로트가요제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회를 하고 있는 김양욱 대회본부장(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회장).

노래로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확~'



대회 본부석에 앉아 있는 김양욱 대회본부장, 권순태 새시대 한국노인회 전북총회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사진 왼쪽부터).

대상-김용호, 최우수상-송용섭·이명철
우수상-김동석·김영환씨 수상 '영예'

제4회 한옥마을 전국트로트가요제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극복에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현 제전위원장, 김양욱 대회본부장, 김정선 대회준비위원장, 권순태 새시대 한국노인회 전북총회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이사, 권이한 전민일보 이사 등 내빈 18명과 함께, 전국에서 온 14명의 본선참가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본선 참가자들은 이날 열띤 무대를 벌였다. 그 결과 김용호(전주시)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송용섭(전주)씨와 이명철(전주)씨가 최우수상을, 김동석(전주)씨와 김영환(충남 예산군)씨가 우수상을, 정미영(익산)씨와 정윤덕(경북 구미시)씨, 소민건(전주)씨가 우등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양호(부산)씨와 조영문(경남 산청군)씨가 장려상을, 김성록·김용안 콤비(전남 담양군)와 정지혜(군산)씨가 인기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식(충남 서천군)씨와 김정순(익산)씨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양욱 대회본부장은 "문화와 예술의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앞장서서 끊임없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매년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본 행사를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인사말씀을 하고 있는 황의욱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



열창하는 김용호씨.



초대가수로 무대에 선 이수정씨의 열창.



열창을 하고 있는 김성록·김용안 콤비.



사회를 맡은 유진.



대회 공로상을 받은 이수정씨(오른쪽).



열창을 하고 있는 정미영씨.



열창을 하고 있는 송용섭씨.



대회 공로상을 받은 김두현씨(오른쪽).